

테크노-사이버 패션에서의 메이크업의 미적 특성

정 귀 숙* · 조 경 희**

초당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학과* · 목포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f the Make-up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Techno-Cyber Fashion

Kwi-Sook Chung* · Kyoung-Hee Cho**

Dept. of Beauty Coordination, Chodang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Mok-po National University**

(2004. 4. 28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chno-Cyber fashion in modern fashion, and especially, how the make-up in the Techno-Cyber fashion is expressed artistically, and finally, how much the make-up has its aesthetic value and significance.

This study has its meaning in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chno-Cyber fashion and the make-up. Further more, the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interaction of the make-up by the fashion trend.

The way of the study is to analyze its features that are shown in the documents of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the study precedent, the technical journal, and the fashion picture. And also the study refers to the related contents in the searching for internet.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expressed make-up is shown with the various aesthetic styles, as follows:

First, the future-oriented characteristics is shown as the expression of the metallic make-up that emphasizes the glitter and glossy texture, and of the transparent make-up that emphasizes the simplicity of the body.

Second, the surrealistic characteristics is expressed to the collage make-up that expresses the unexpected charact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pecial materials and the position changing and the graphic make-up that destroys the standardized form.

Third, the anti-cultural characteristics is expressed to the Cyber-Punk make-up that expresses the destructive and challenging image.

Finally, the compromise characteristics is shown in the Ethno make-up combined the concept of the ethnic with the high technology and the Androgynous make-up which destroys the bounds of the sex.

Key words : techno-cyber(테크노-사이버), make-up(메이크업), metallic(금속적), aesthetic(미)

I. 서론

뉴미디어(new media), 컴퓨터 네트워크(computer network), 멀티미디어(Multi-media) 등의 첨단산업과 정보통신의 진보로 현대인들은 개성화 다양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인간과 테크놀로지를 이어주는 현대예술의 위치를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다.

패션은 그 시대의 사상과 가치관, 미의식의 영향을 가장 많이 표출시키는 종합 예술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메이크업을 포함한 토탈 패션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20세기 메이크업은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단순히 장식 본능적 치장의 행위에서 보다 복잡한 인간의 미적 가치와 관련된 중요한 생활문화로서 20세기 이전과 다른 새로운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며 변천하여 왔다. 그러나, 메이크업은 패션의 한 부분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문으로서의 구체적인 관심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메이크업에 관해서 주로 형태나 화장술의 시대적인 변천 혹은 성분, 제조상의 과학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을 뿐 메이크업의 미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거의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패션과 메이크업과의 관계를 파악한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현대패션에서의 테크노-사이버 패션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테크노-사이버 패션에서의 메이크업이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현되었고 또한 이러한 메이크업들은 어떤 미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크게 중시되고 있는 메이크업을 패션 표현의 하나로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패션 트렌드에 따른 메이크업의 상호작용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데에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범위는, 테크놀로지가 패션에 반영되기 시작했던 1960년대 이후부터 메이크업 표현 기법이 본격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된 1990년대를 집중적으로 메이크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 등 문헌 고찰을 통해 테크노-사이버의 개념에 관한 것을 이

론적으로 파악하였다. 테크노-사이버 패션과 테크노-사이버 패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특성은 전문서적, 패션사진, 패션잡지, 신문기사, 인터넷 검색 등의 관련사진 및 내용을 참고하여 두드러지게 드러난 특성들을 주로 인용하여 실증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II. 테크노 사이버의 개념 및 유행 배경

전자 댄스음악을 통칭하는 테크노(techno)는 "Technocrat(전문가 집단)"에서 왔다는 말도 있지만 60년대 독일의 테크노 음악의 1세대 크라프트 베르크가 자신의 음악에 기계적 음악이 많이 들어 있어 '테크노 팝'이라고 부른데서 비롯되었다.¹⁾

최근 우리나라의 테크노 붐은 테크노 분위기의 영화, 테크노풍의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오는 것들이 많고, 이외에도 테크놀로지와 예술이 만나는 곳에는 어디든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문화 분야에 테크노적인 요소가 파급되는 것은 테크노가 가장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사이버(cyber)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라는 단어의 줄임말로써 '배의 키를 잡다'라는 뜻에서 조종 하다는 의미가 파생되었으며, '통치하다'는 의미로까지 확장되었다. 현대적 의미에서 사이버네틱스는 미국의 수학자 노버트 위너(Nobert Wiener, 1894-1964)에 의해 정보소통에 관한 새로운 통합 명칭으로 채용한 것이 있다.²⁾ 컴퓨터의 보급은 신문화를 창조하는 사이버스페이스를 비롯하여 사이버 펑크(cyber punk), 테크노 새비(techno savvies), 테크노-사이버등의 신조어를 등장시켰다. 결국, 테크노-사이버는 기계,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노(techno)'와 인공두뇌, 피드백(feed back)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사이버(cyber)'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사이버란 용어는 '강철', '합성' 이 합해진 말로 최첨단의 과학문명을 뜻하며 컴퓨터 네트워크와 미래지향적인 가상현실을 뜻한다.

1960년대에는 미국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함으로써 과학혁명의 시대, 우주 탐험시

대가 시작되어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시기에 예술 분야에서는 옵아트(op art), 팝아트(pop art), 키네틱 아트(kinetic art), 미니멀리즘(minimalism)들은 종전의 관념을 탈피하여 대중예술로서 전개되었다. 패션은 이러한 예술 양식의 영향을 받아 강력한 색채와 단순한 형태가 유행되었으며 플라스틱, 금속 등의 미래지향적인 광택소재와, 아크릴, 비닐 등과 같이 인체의 내부를 비출 수 있는 트랜스 페런트(transparent)한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패션의 경향은 메이크업에도 나타나 60년대 무렵 메이크업은 형태 색상 면에서 장식화되고 대담한 기법들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딱딱한 패션소재들에 잘 어울리는 인위적으로 만든 아이메이크업(eye make-up)을 강조한 점도 많이 보인다.

이러한 것은 과학기술과 예술세계 사이의 교류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패션과 메이크업에서도 이질적 소재와 함께 미래적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197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불황을 겪었던 어려운 시기로 인간성 상실을 경고하고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반전운동이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았으며, 기성세대에 반발하여 사회적인 불만을 표출한 펑크스타일이 젊은이들의 독특한 문화양식으로 나타났다.³⁾

펑크 문화가 패션에 도입됨에 따라 검정 칠을 한 눈, 진하게 립스틱을 바른 입술, 쇠사슬을 한 고무와 플라스틱제의 바지와 귀와 코에 단 안전핀 등으로 인간적인 정서가 파괴된 듯한 기괴한 모습을 나타냈다.⁴⁾

80년대에 이르러서는 기계적인 리듬의 전자음악과 공상과학영화 등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테크노족과 사이버 펑크족 들을 등장시키기에 이르렀다. 패션계에서 사이버를 반영한 사이버 펑크 패션이 등장하게 되어 남녀 모두 좀 더 자유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다.

이때 유행했던 메이크업 역시 유니섹스 모드로 여성이 남성처럼 눈썹을 짙게 그리고 남자가 얇은 메이크업을 하여 남성도 여성도 아닌 것처럼 표현했다.⁵⁾ 또한, 디스코 룩(disco look)의 열풍으로 황금색과 같은 펠이 가미된 색상이 유행하였고, 화장품 업계는 금속과 같은 효과를 내는 립스틱 색상을 출시하여 메이크업에 있어서 화려함을 강조하는 다양한 색상과 펠(pearl)제품이 사용되었다.⁶⁾

1990년대는 컴퓨터 산업의 눈부신 성장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진보와 산업공해에 따른 환경문제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멀티미디어와 기계문명에 의한 테크노-사이버 스타일이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사회적으로는 소비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첨단기술에 대한 매력과 미래지향적인 요소의 테크노 풍은 라텍스(latex), 왁스 코팅 등의 하이테크 가공 소재를 사용하여 테크니컬 이미지와 아방가르드한 형태로 패션에 시도되고 있었다.⁷⁾ 뉴 에이지로도 불리는 이 시기의 색상은 미래의 패션을 이끌어갈 새로운 개념으로 흰색과 메탈(metal)의 금·은색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우주적 이미지를 상징하고 소재들은 메탈릭 소재, 스펀텍스 신소재 등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신비, 도전 등의 요소가 된다. 이것은 패션에서 사이버 펑크 룩 또는 앤티 패션(Anti-Fashion)⁸⁾으로 표현되면서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패션을 창조하고 이끌어 가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개인의 독창성이 중요시되고 하이테크화 경향으로 흐르는 패션의 추세와 함께 메이크업에서도 전위적인 요소가 강한 개성적인 표현들이 등장하였다.⁹⁾ 기존의 메이크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독특한 색상과 금속, 동물의 깃털, 종이, 비닐 등의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한 메이크업 등 실로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상,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패션과 메이크업을 살펴본 결과 시대사조에 따른 패션경향은 메이크업표현에 즉각 반영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패션의 트렌드를 파악함으로써 메이크업의 트렌드와 표현 양상을 알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Ⅲ. 테크노-사이버 패션

1. 테크놀로지가 반영된 패션범주

테크노-사이버 패션이라 함은 용어 자체가 지닌 의미대로 현대 테크놀로지에 사이버적인 요소가 가

미된 패션 스타일을 말한다. 좀 더 세분해 본다면 테크놀로지가 반영된 패션법주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1) 스페이스 룩(Space Look)

스페이스 룩(Space Look)은 코스모스 룩(Cosmos Look), 우주 룩(Universe Look)과 같은 명칭으로 사용된다. 「Space」란 허공으로 한없이 넓어진다는 「Spatium」이라는 그리스어에서 비롯된 말이며 사전적 의미로 보면 '공간, 장소, 우주' 등을 뜻하는데 패션에서는 미래지향적 스타일을 가르킨다.

1960년대에 나타난 스페이스 룩은 시대적 흐름을 심도 있게 반영하여, 과학문명의 테크놀로지와 의상 예술의 조화로온 교류 속에서 패션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미래의 우주공간을 상징하는 심플(simple)하고 기하학적인 외양의 기능적인 것이 특징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앙드레 쿠레쥬의 뉴 바디(New Body)이다. 1967년 발표된 뉴바디는 우주를 향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육체를 하나의 오브제로 간주하고 여기에 직접 비닐과 셀로판지 등과 같은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하여 대담한 노출과 젊음의 역동감이 넘치는 미래지향적 패션을 시도하였다.¹⁰⁾

또 다른 예로 피에르 가르탱(Pierre Cardin)의 코스모 코어 룩(cosmo corps look)을 들 수 있다. 기계적인 우주복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소재는 알루미늄과 같이 표면이 가공 처리되어 있으며 직선적인 실루엣과 기하학적인 구조의 모던한 감각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또한, 패션에서는 투명한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의 다양한 변화를 착안한 시-쓰루 의상의 등장은 우주 비행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는 스페이스 패션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시-쓰루 룩은 투명한 의상 속에 육체가 그대로 드러남으로서 막힘과 단절이 없고 자유스러움을 준다. 과거에는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체를 구속 및 노출을 시켰지만 산업화로 여성들에게 권리를 자각시켜 자유로운 의식 속에서 생겨난 성적 자유풍조이다.¹¹⁾

한편, 스페이스 룩은 라이크라(lycra) 등 신축성 있는 소재 등으로 인체에 완전히 밀착하거나 비닐과 같은 투명한 소재로 인체를 그대로 드러나게 표현하

므로서 종래의 왜곡된 인체미를 거부하고 사실적으로 드러내면서 표현하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과도한 장식성에서 벗어나 단순한 형태를 추구했던 미니멀리즘 컨셉과도 잘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키네틱 패션(Kinetic Fashion)

「Kinetic」이라는 말은 어원상 그리스어 Kinesis (=movement)와 Kinetok(mobile)에서 유래되었다.¹²⁾

키네틱 아트는 빛 자체를 소재로 하여 빛의 반사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서 1960년대 중반 이래 단순히 「움직이는 미술」에서 「빛과 예술의 운동」¹³⁾으로 발전되었다. 이와 같이 키네틱 아트는 빛과 움직임이 하나로 종합되어 최종적으로 환경예술이나 컴퓨터 아트로 진전하게 되었다.

키네틱 패션은 빛과 움직이는 물체가 작품으로 창조되는 키네틱 아트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이미지를 말한다. 패션에서는 다른 조형예술과는 달리 유동성을 갖는 인체에 직접 입혀짐으로서 의상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미술의상 디자이너 글로리아 월시 (Gloria Walsh)는 「의상은 육체를 감싼 옷감이 움직이면서 생기를 띄게 된다」¹⁴⁾고 하였는데 의상이 하나의 예술품으로서 인체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소재의 움직임에 대한 그 중요성을 피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상이 직물을 소재로 하여 몸에 맞게 재단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종래의 관념을 뛰어넘은 소재를 선택하고 그 소재가 인체에 입혀져 표현되는 움직임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다시 말해, 키네틱 패션은 의복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공간과 시간을 포함한 4차원적 예술로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빛과 동적 패턴, 비닐, 거울 등의 다양한 신소재로 새로운 패션 양식의 출현을 가능케 하였으며 과학기술과 예술의 접목을 가능하게 하였다.

3) 사이버 패션(Cyber Fashion)

사이버 이미지는 첨단 테크놀로지 감각 이외에도 과학문명 발전의 역작용으로 인한 불안감과 저항감에 따른 반사회적인 행태까지도 내포하면서 컴퓨터

세대들에게 크게 확산되고 있다. 사이버 패션은 사이버 핑크 룩의 형태로서 70년대의 핑크문화의 재창조자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핑크는 극단적인 핑크 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첨단 과학의 모티브와 소재를 사용하여 기존의 핑크의 합성을 시도한다.¹⁵⁾

사이버 핑크 패션에는 실버나 네온등의 색상과 미래적이고 첨단적이며 이미지를 나타내는 색상이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오프-칼라(off-color)¹⁶⁾와 플라스틱, 비닐, 빛의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신소재 등 얇고 반짝반짝 빛나는 폴리에스터(polyester)와 라이크라 등과 같은 신축성이 뛰어난 하이테크 소재들이 사용되었다.

사이버 패션은 도전적인 이미지와 함께 자유화를 실현한 극단적 반문화성을 내포하고 있다.

2. 테크노-사이버 패션의 특징

테크노-사이버 패션을 디자인적 기본원리에 따라 형태, 색채, 소재 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각 테크노-사이버 패션의 특징을 알아 볼 수 있다.

1) 형태

테크노-사이버 패션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우주의 질서를 반영하는 다양한 기하학적 형이다.

기하학적 형태구성은 기계화된 현대를 이해하는 합리적인 조형으로 인식되며, 현대를 상징하는 미의 표현방법으로서 의상에 다채롭게 응용되고 있다.¹⁷⁾

<사진 1>은 티에르 무글러의 작품으로 가장 안정된 형태를 나타내는 각뿔 중 하나인 원뿔의 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기하학적 형은 단순히 입는 의미의 의복 개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대성을 표출하는 실험의 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인체의 형태를



<사진 1> Thierry Mugler, 1985 (Dictionnaire de la mode au XX Siecle, p. 261)

새롭게 인지해서 표현하고 있는 테크노-사이버 패션에서의 형태의 특징인 기하학적 형은 현대사회의 기계화를 낙관적인 시각으로 인식하는 의미를 지니며 기계적 속성인 규격화와 반복성이 미적으로 표현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색채

첨단과학과 관련된 테크노-사이버 요소에 있어서 빛은 의상에서 다양한 영감을 제시하며 색채 또한 상징적 의미로 직접적인 이미지를 전달해준다.

테크노-사이버 패션에 많이 사용된 색상은 금색과 은색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은색은 스페이스 패션의 대표적인 색상이라 할 수 있으며, 금색 역시 테크놀로지를 대변하는 색상으로 미래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색상이다.

또한, 옵티컬 패턴의 색상¹⁸⁾은 원색의 사용과 반복적 구성으로 시선을 강하게 끌며 색채에 의한 소용돌이 착시의 효과는 첨단매체의 새로운 예술적 체험을 하게 된다.

테크노-사이버 패션을 대표하는 하이테크하고 메탈릭 색채는 소재의 표면감과 재질감에 따라 빛의 강도를 달리하여 광택의 정도를 표현하게 된다.

<사진 2>은 최근 컬렉션에서 보여지고 있는 움직이는 소재에 광채와 반사를 이용한 빛에 의한 색상이다. 이중조직과 코팅의 소재를 이용한 홀로그램효과와 색상은 최근에 가장 많이 보여지는 빛의 개념에 가까운 색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테크노-사이버 패션에 나타난 두드러진 색채는 금색, 은색, 옵티컬 패턴과 사 이키델릭 이미지의 네온 색채, 원색적인 그래픽 색채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색채들은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암시하는 이미지와 함께 표현되었다.



<사진 2> VivienneTam, 1999 (www.firstview.net)

3) 소재

테크노 소재(techno textiles)란 첨단 과학 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의 변화로 신기술에 의해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첨가된 소재¹⁹⁾를 말한다.

테크노 소재의 경향은 광택감이 있는 소재, 매트한 코팅 직물들, 투명한 비닐, 광택 소재 등 매끄러운 표면의 직물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현실적 요소보다는 실험성이 강한 요소나 테크놀로지가 가미된 메탈릭 소재 등이 테크노-사이버 이미지를 제공한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은 패션의 미래가 신소재 개발의 기술 영역에 달려 있으며 컬렉션에서 소재의 선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직접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거나 그들의 아이디어가 표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소재를 제공해주는 직물 디자이너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²⁰⁾

여기저기 구겨지고 때묻은 듯한 비닐소재로 제작된 작품(사진 3)은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작품으로 인체를 그대로 드러나게 디자인되었다. 비닐 소재의 투명성은 인체를 그대로 드러내어 속박하지 않는 듯한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지만 하반신을 속박하고 있는 얇은 비닐은 인체의 움직임의 억제하는 듯하게 표현된 초현실적 기법을 사용한 작품이다.



<사진 3> 1990's Alexander McQueen, (Fashion Today, 95. 2, p. 110)

(Cosmos)의 '질서 있는 체계', '조화'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²¹⁾

메이크업이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로서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이다. 이는 여러 가지 화장품들을 기교적, 예술적으로 사용하여 피부를 미화시키고 용모를 다듬어서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²²⁾

메이크업이 사회 문화적 가치를 지니며 일반인들에게 널리 사용되어 패션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였다.

20세기 패션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인체 전반에 행해지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여 통일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토탈 패션의 경향을 띄고 있다. 이러한 패션의 토탈화는 20세기에 들어와 현대 산업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특히 메이크업이 갖는 비중은 20세기 전보다 훨씬 확대되었다.

현대패션에서의 테크노-사이버 메이크업은 주제에 따라 여러 기법으로 재료 등에 구속받지 않는다. 인간의 육체에 새로움을 추구하여 인체를 디자인한다는 뜻으로 그 방법이 다양하여 눈, 코, 입의 형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점에서 내적 정신과 외적 감각으로 창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하학적인 패턴을 표현특징으로 하여, 정형화된 형식을 파괴하고 소재나 패턴의 사용에 있어 무한히 다양해진 첨단의 감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형태의 왜곡·과장·축소·파괴·빛의 움직임의 강조한 글리터·글로스 소재 시각적 운동감을 표현한 다양한 패턴과 현란한 그래픽 색채 혹은 대비적인 무채색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²³⁾

IV. 테크노-사이버 패션에서의 메이크업 특성

1. 테크노-사이버 메이크업의 정의

메이크업은 그리스어 코스메티코스(Cosmetics)의 '잘 정리한다', '감싼다'에서 유래된, 코스모스

2. 테크노-사이버 패션에서의 메이크업의 조형적 특성

1) 라인(Line)

테크노-사이버의 패션의 형태는 기하학적인 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경향은 메이크업 형태의 특징에서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메이크업에서의 기하학적 형 표현은 얼굴과 인체를 캔버스로 생각하여 여기에 자유로운 감각을 기하학적 라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시선을 집중시키며 시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예술적인 화장법이다.²⁴⁾

먼저, 형태의 한 요소인 점은 단일 초점이 되는 경우로 매력점일 수도 있고, 다수의 점들을 불규칙적으로 그려 넣은 기하학적 구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얼굴에서 선을 이루는 것에는 아이브로우(eyebrow), 아이라인(eyeline), 립(lip)의 외곽선 등으로, 아이섀도(eyeshadow)나 치크(cheek)를 선적인 터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으며, 직접 얼굴에 그림을 그리듯이 낙서하듯이 선을 그려 넣기도 한다. 이러한 선의 형태는 직선·곡선 등의 종류에 따라 이미지가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²⁵⁾

메이크업 표현에 있어서 기하학적 형은 규칙적이고 정형화된 단순한 형태로서 자연스러운 형태와는 대조적인 딱딱하고 강한 인상을 준다.

<사진 4>은 아이 메이크업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메탈릭 터치로 외계를 표현한 듯함과 기하학적 형태가 어우러져 미래적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다.

눈, 코, 입 등 얼굴 각 부분에 메이크업 디자인 개별요소들의 시



<사진 4> 1990's (Donna, N.10, 01. 8, p. 130)



<사진 5> Jean Paul Gaudier, 96/97 (Techno Textiles, p. 101)

각적인 변화를 통하여 얼굴이라는 하얀 캔버스 위에 그래프를 그리듯 탄생하는 세련된 기하학적 형태의 메이크업은 실험성이 강한 테크노-사이버 패션에 어울리는 삼각형, 사각형의 기하학적 형태를 메이크업 요소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래픽 요소의 기하학적 형의 도입은 무난하고 정형적인 메이크업에서 벗어나 스스로 제한적이던 메이크업 영역의 테두리를 벗어난 표현가능성의 확대로 평가된다.

2) 색조(Tone)

일반적인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채의 선택은 이상적인 여성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각 부분 메이크업의 색채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차가운 색을 기조로 하여 대담한 색상대비와 명암 대비를 주는 메이크업은 하이테크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미래지향적 감각을 느끼게 한다. 선명한 레드와 아이섀도우나 눈주위에 안경을 썼을 듯한 은색의 아이섀도우, 반쪽만 칠한 립(lip) 등의 메이크업에서는 기존의 아름답다는 개념보다는 개인의 자유의지와 개성을 중요시하는 하이테크 감각이라 볼 수 있다.²⁶⁾

하얀 피부는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 되어왔다. 단지 미적 표현만이 아닌 권위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었던²⁷⁾ 화이트는 개방성을 지닌 색상으로서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이미지를 준다. 화이트 색상을 이용한 화이트 메이크업²⁸⁾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용어로 색상에 의해 분류된 미래지향적 메이크업의 한 형태이다.

<사진 5>은 장 폴 고티에의 96년 A/W의 컬렉션에서 선보인 작품이다. 테크노-사이버적인 의상과 창백한 피부 톤에 테크놀로지를 더한 골드 헤어스타일과 레드 톤(tone)의 아이 메이크업은 차가운 기계미를 표현하고 있다.

현대 메이크업에 있어서 검정색의 과장된 표현은 사이버 펑크의 영향을 받은 형태로 검정 색으로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여 전위적인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990년대의 테크노-사이버 메이크업의 색채는 컴퓨터 시대와 친근한 CMYK의 사이언, 검정색과 형

광택을 대표로 하는 디지털 색채의 새로운 유형을 창조했다.²⁹⁾

따라서, 테크노-사이버 패션에 표현된 메이크업은 제한적이던 색채선택의 범위를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차가운 계열의 반짝이는 펄 질감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즉, 이목구비의 일부를 과도한 색상을 사용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는 등의 특이한 색채사용과 기법으로 새로운 시각효과를 제시하는 디자인이 특징적이다.

3) 질감(Texture)

현대패션의 이미지를 창조하는데 소재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듯이 메이크업에서도 어떠한 질감으로 표현하였는가에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에서의 질감표현은 최근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사진 6> Paco Rabanne, 1990's
(Book Moda, N.49, p. 321)

테크노-사이버 패션이 테크노 소재로써 미래적 감각을 잘 표현하였다면 메이크업에서의 테크노 이미지는 메탈릭 질감과 글로스한 질감으로써 잘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인 요소보다는 비현실적 요소, 일상적이기보다는 비 일상적인 재료가 가미된 메이크업이 사이버적 이미지를 제공한다.

메이크업의 질감을 표현하는 용어로는 광택의 유무와 광택의 종류의 따라 축축하게 윤기가 흐르는 광택을 뜻하는 글로시(glossy), 반짝이는 광택을 뜻하는 펄(pearl) 또는 글리터(glitter) 등이 있다. 이러한 광택 질감들은 입체감 있게 돌출 되어 보이고 시각적 초점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피부표면과 유사한 질감의 재료를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테크노-사이버 메이크업을 표방하는 아티스트들은 대체로 차가운 감각의 광택감이 있는 재료를 즐겨 사용하는데 투명감과 메탈릭 질감표현은 더욱 더 미래를 상징한다.

또한, 테크노-사이버 메이크업은 기존의 메이크업 방식을 파괴하여 금속, 동물의 깃털, 종이, 비닐 등의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한 초현실적 메이크업 등이 등장하여 미래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였다.

<사진 6>은 얼굴뿐만이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실버 크림 새도우를 발라서 지나치게 광택을 강조하여 감정이 메마른 인간상을 제시하여 미래적인 분위기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첨단 과학 분야에서 비롯되어진 테크노-사이버 패션에서의 메이크업은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테크놀로지를 인간중심의 사고와 접목시켜 '개성화', '다양화', '투명성'등을 살린 메이크업이 포인트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해주는 재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기능적인 면과 심미적인 면을 함께 갖춘 새로운 미래의 메이크업 표현이라 할 수 있다.

3. 테크노-사이버 패션에서의 메이크업의 미학적 특성

지금까지, 테크노-사이버 메이크업에서의 조형적 특성을 살피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테크노-사이버 메이크업의 이미지는 미래지향적, 초현실적, 의외적, 전위적, 인공적인, 사이버적, 절충적 등의 성향을 띄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김효경의 선행연구³⁰⁾에서 테크노-사이버 패션의 내면적 특성을 미래지향성, 초현실성, 반문화성, 절충성으로 구분한 것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파악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테크노-사이버 메이크업의 미학적 특성 분석을 김효경의 구분에 의거한 미래지향성, 초현실성, 반문화성, 절충성으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미래지향성(Futuristic)

문화, 예술에서의 미래지향적인 경향은 우주 시대의 우주세계와 21세기의 미래세계에 대한 기대가 집중되면서부터 등장하였다.

패션에서의 미래주의란 자연 지향과는 반대로 인공 지향적이며 미래감을 지닌 디자인을 테크노-사이버 패션의 정신적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에서의 테크놀로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패션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³¹⁾ 인간중심의 사고와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표현으로서 드러난다.

메이크업에서의 미래주의는 인공적인 미를 부여한 기하학적이고 우주를 테마로 하는 필을 이용한 메탈릭 질감과 색상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춘 그래픽 질감의 표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테크노-사이버 메이크업의 미래지향성은 크게, 사이버틱한 메탈릭 메이크업과 광택이 가미된 투명 메이크업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1) 메탈릭(metallic) 메이크업

첨단 과학을 통한 재료 개발은 탁월한 피부 보호와 노화 지연 효과로 기존의 스킨케어 개념에서 보다 진보한 하이테크 메이크업이 제시되었다.³²⁾

미래를 상징하는 메탈릭 메이크업 색상은 금색과 은색이 대표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금속성의



<사진 7> Tommy Hilfiger, 1990's (Millennium Mode, p. 99)

색상은 조명아래에서 차가운 빛을 반사하므로 테크노-사이버 패션과 메이크업에서는 필수적이다.³³⁾ 메탈릭 메이크업은 개성미를 표출하고 독창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현대인의 생활 시스템을 혁신적인 양상으로 재구축하고 미래에 대한 상상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메이크업에서는 메탈릭과 관련된 요소 즉, 필 파우더, 빠이에트(paillettes)³⁴⁾, 필 립스틱, 투명한 파운데이션 등 메탈릭 감각의 다채로운 새로운 재료들이 등장했다. 색상에 있어서도 네온색조, 은색, 고풍택 색상 등 첨단 테크놀로지의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 색상들이 많이 사용되어졌다.(사진7).

최근 연구에서 '사이버 문화에 대한 경향이 미래적이다'³⁵⁾ 라고 발표된 적이 있다. 메이크업에 있어서 사이버 경향이 가장 짙은 색상으로는 은색을 들 수 있다. 사이버 색상의 형용사적 이미지는 '하이테크한', '인공적인', '다이내믹한', '환상적인', '심플한', '기능적인', '현대적인' 등으로 나타났다.³⁶⁾

이연희(2000)³⁷⁾는 메탈릭 메이크업은 가장 지성적이지 않으나 가장 독특하며 색채 메이크업으로 인하여 여성 얼굴의 개성과 독특함을 표현하는데 영향력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미래지향적 메탈릭 메이크업은 우주적 모드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전통적인 메이크업 습관을 탈피한 기발한 감각과 전위적인 경향이 더욱 발전된 면모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테크노-사이버 패션에서의 메이크업은 과학적 이미지의 기하학적 형태와 움직임을 반영하면서 혁신적이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다.

(2) 투명 메이크업

투명성이란 전면과 후면을 통하여 보여지는 실제적 속성, 빛을 투과시키는 재료의 특성, 배후에 있는 물체를 있는 그대로 보이는 물질적 특성, 공간적으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을 동시에 지각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³⁸⁾

테크노-사이버 패션에 사용된 재료들 중 우주를 테마로 하는 헬멧의 마스크와 우주선의 창은 투명한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그리하여 투명한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의 변화가 다양하게 전개되어 등장하였다.³⁹⁾

현대의 메이크업은 기능성을 살려 피부의 느낌을 편안하게 하고 단순성과 순수성을 강조한 미니멀 미래지향적 메이크업으로 투명효과와 빛의 효과로 인

체의 단순한 형태미를 표현하는 특성을 지닌다. 특히, 미래지향적 메이크업은 광택과 글로시 한 이미지를 강조한 메이크업으로서 피부표현을 과거의 피부 잡티를 완벽하게 커버하는 두꺼운 메이크업에서 탈피해 가볍고 미래적인 광택감으로 윤기를 표현한⁴⁰⁾ 투명성 효과를 준 특징을 지닌다.

현대 패션에서 투명성은 미래 이미지를 내포하는 누드(nude) 효과로 드러나는데⁴¹⁾ 이러한 대안으로 바디페인팅은 미래패션의 누드욕구를 충족시키는 패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 초현실성(Surrealistic)

초현실주의는 현실에 대한 파괴나 초월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예술사조로 말한다. 여기서 무의식이란 정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통제할 수 없는 최하위의 의식상태를 의미한다.⁴²⁾

초현실적 표현이란 비현실적인 형상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현실에서 불가능한 어떤 정서나 감정, 사고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초현실적 표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아이디어에 집중 강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들이 매우 중요시했던 객관적 우연성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초현실적 표현은 주관적 면이 강하게 돌출되기 때문에 때로는 유머러스하고 부자연스럽기조차 하다. 그러나 이러한 돌출적 표현이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것을 요구하는 현대인들에게는 패션의 뚜렷한 개성과 흥미, 욕구를 유발시키게 되어 패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⁴³⁾ 메이크업에서도 추(攄)의 미(美)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재료와 인간과의 융합을 비롯한 기하학적인 형태와 현실을 초월한 개성과 흥미, 욕구가 그대로 표현되었다.

테크노 사이버 이미지 메이크업의 초현실성은 회화의 한 형태로 도입한 메이크업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색재료와 고정관념을 탈피한 위치 배열등으로 표현된 콜라쥬 메이크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것들은 비구상적, 기하학적인 형태의 그래픽 메이크업의 특징을 띠면서 나타나고 있다.

(1) 콜라쥬(Collage) 메이크업

콜라쥬의 어원은 프랑스어의 콜레(Coller)로 '붙로 붙이다'라는 뜻으로, 콜라쥬는 '아교로 붙임', '붙칠하여 붙이기'를 의미한다. 콜라쥬 기법은 재료의 적절성에 대한 기존의 모든 관념을 깨고 재료가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여 재미를 유발시킨다.⁴⁴⁾

테크노-사이버 패션에서는 의복의 소재로서 사용할 수 없는 소재를 도입함으로써 의외성이 표현되고 대중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자아내게 했다.

메이크업에서도 이질적 재료와 혼용 소재의 한계성을 탈피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다. 메이크업 재료라 할 수 없는 레이스 조각, 플라스틱, 모조품 등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변화를 주거나 인조 속눈썹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비일상적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한 대표적 메이크업이 콜라쥬 메이크업이라고 정의한다.⁴⁵⁾



<사진 8> Christian Dior, 99, S/S
(www.firstview.com)

<사진 8>은 이질적인 재료의 도입에 있어서 큐빅과 같은 반짝이는 소재를 사용하여 리드미컬한, 환영적 움직임을 표현한 것이다. 얼굴이라는 캔버스 위에 직접적으로 역동적 느낌을 극대화시킨 메이크업이다.

이러한 콜라쥬 메이크업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존의 메이크업에 익숙해 있는 현 사회에서 이질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여 초현실성이 반영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면이 엿보인다. 재료들의 혼합과 기법의 다양화로 전체적인 움직임의 전개와 동시적 표현이 추구되었다.

테크노-사이버 패션에서의 콜라쥬 메이크업은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새롭고 신선한 것을 추구하며, 실험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전위적인 현대감각을 내포하여 재료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

시하고 있다.

(2) 그래픽(Graphic) 메이크업

그래픽(graphic)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그라피코스(Graph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쓰다'라는 것이 원래 뜻이며 '도식화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한다.⁴⁶⁾

인체를 하나의 캔버스로 생각하여 얼굴의 중심을 무시하고 오히려 새로운 공간개념을 창출하여 본래의 의미로부터 이탈시킨 새로움을 보여준다. 표현기법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응용하거나 색채배색과 모티브 변화에 이르기까지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사진 9> Krizia, 1999
(Millennium Mode, p. 19)

투명지퍼가 달린 미니 드레스의 활동

적이고 경쾌한 이미지와 눈썹만을 기하학적 형태로 강조한 메이크업은 미래적인 이미지로서 테크니컬한 실감을 더해준다(사진 9).

테크노-사이버 패션에서의 그래픽 메이크업의 초현실성은 획일화된 형식의 파괴와 과장된 표현은 첨단 기계문명의 발달로 생겨난 인간의 소외감을 극복하여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내적인 심리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테크노-사이버 패션에서의 메이크업은 얼굴 조형을 무시함으로써 초현실적 이미지를 느끼게 하여 심각한 의미보다는 유머러스함을 주고, 기존의 정형화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3) 반문화성

반문화(Counter Culture)는 기존 문화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개선시키거나 변화시키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기존문화와 반문화는 서로 비판, 견제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차원으로 발전되어 왔다. 현대 사회의 반문화적인 성향은 테크놀로지가 낳은 편리함 이면의 불안적인 요소로부터 이탈하려는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성사회에 대한 반항적 반 모드 현상으로 부각되었던 펑크 패션의 등장은 7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어 젊은이들의 무정부주의에 근거한 분노와 반역의 물결이었고, 급진적 양상으로 발전하여 '사이버 펑크 룩'이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다.

테크노-사이버 메이크업에서의 반문화적 특성은 검은색으로서 가장 잘 표현되고 있으며 주로 괴기한 장신구나 전위적인 이미지와 함께 표현되어지고 있다.

티에르 뮤글러가 세계최초로 검붉은 입술과 아이 새도우로 메이크업한 모델을 등장 시켰을 때만 해도 그것이 유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거무칙칙한 입술과 어두운 갈색의 눈 화장은 마치 병든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혐오감을 줄 정도였다.⁴⁷⁾

그러나 이런 반문화적인 퇴폐성을 반영한 메이크업은 사이버 펑크 메이크업이라는 이름으로 세기말에 크게 유행하였다.

(1) 사이버 펑크 메이크업

사이버란 컴퓨터상으로 연결되는 인간과 관련된 모든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이버 패션은 패션에서의 사이버 이미지를 반영한다.

사이버 펑크 메이크업은 펑크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사용된 검정 색조와 함께⁴⁸⁾ 기하학적인 형의 주류를 이루는 메이크업으로 전위적인 이미지를 연출한다.

일반적으로 메이크업의 색상은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메이크업은 얼굴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색계열의 색조는 얼굴의 핏기를 감추어 어두워 보이게 함으로써 비인간적이며 인공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사진 10>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기하학적으로 구성된 눈썹과 광택의 실버 필을 눈두덩이에 은색 안경을 쓴 것과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의 메이크업에 펑크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은 첨단 물질문명 사회에서

의 반문화적인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타투(tattoo)는 원시 시대에 소속집단을 표시하기 위한 상징적인 것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사이버 펑크 메이크업 표현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극단적인 타투 효과는 1990년대 말 성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 방법으로 받아들여지는 미 의식 변화의 반응과 함께 대중들의 개인 취향의 한 표현 방법으로까지 발전하였다.⁴⁹⁾



<사진 10> Etro, 1990's (Millennium Mode, p. 31)

타투와 함께 피어싱 또한 펑크의 한 표현으로 반문화적 양상을 보이는데, 테크노 패션의 일부분으로 나타난 피어싱의 경우 귀 외에도 혀나 눈썹, 배꼽까지도 뚫는다.

1990년대 이후 제시된 사이버 펑크 메이크업은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예술이 젊은층 사이에서 크게 성행함으로써 전통적인 습관을 탈피한 기발한 감각과 전위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게 되었다.

4) 절충성

절충주의는 좁은 의미로는 각기 다른 분위기의 단품 아이템들을 코디네이션 하는 것을 의미 할 수 있으나 넓게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기존의 영역을 넘어서 서로 교류하는 것'을 의미한다.⁵⁰⁾

이질적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친화되어 나타났고, 전혀 조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특성들이 거부감 없이 혼합되어 새로운 절충적 모드를 창출했다. 이러한 절충성은 역사의 단순한 회고나 재현이 아닌 모든 역사적 요소들을 임의적으로 조합·절충하여 에콜로지(ecology), 팝(pop), 펑크(punk), 미래주의(futurism) 등 다양한 패션 스타일들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⁵¹⁾ 테크노-사이버의 패션과 메이크업에서도 소재의 다양화와 재질감의 강조 등으로 기존의 전통방식을 거부한 전위적인 패션경향에서 절충성이

나타나고 있다.

테크노-사이버 메이크업의 절충성은 양성적 특징을 띠며 나타난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메이크업과, 전통적 에스닉 분위기에 하이테크한 감각이 혼용되어서 나타난 에스노(ethno) 메이크업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메이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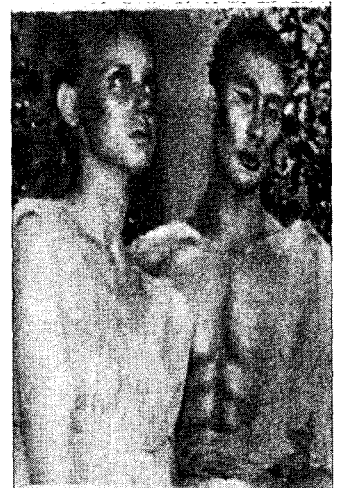
앤드로지너스란 성이 서로 교차되어 새로운 감각을 표현한 것으로서 여성이 남성화되고, 남성이 여성화 되는 크로스 오버된 스타일을 말한다.

처음 남녀 패션에서의 이성적 이미지의 수용은 남성에게는 전쟁이후 사회구조에 대한 불만과 도피의 수단으로, 여성에게는 기존의 철저한 남성중심사회에 대한 반항의 성향과, 성 개념을 부정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성 역할의 변화는 여성해방운동과 전후 의식의 변화, 청소년 하위문화를 배경으로 앤드로지너스 패션을 통해 더욱 강조되어 나타났다.⁵²⁾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은 앤드로지너스 표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⁵³⁾ 메이크업에 의한 중성적 이미지, 여성이 눈썹을 남성처럼 굵고 짙게 그리거나 여성이 본래의 얼굴에 가깝도록 투명하고 내추럴 하게 하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메이크업에서의 앤드로지너스 특징은 성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 성구분이 모호하도록 서로의 성이 동시에 표현된 의미를 지니며, 남성 또는 여성과는 차별된 성 이미지의 특징을 띄게 된다.

어두운 색의 남성적 이미지가 메이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젊은이들이 하드록에 열광하던 80년대의 보이조지의 블랙 메이크업은 남성이



<사진 11> M.C.A 프로토타입, 2002 (동아일보, 2002. 4. 24, p. B1)

메이크업을 하는 행위에 여성성을 도입한 것이며, 어두운 색조의 화장은 기계적 속성인 강인한 남성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색조에서는 남성적 요소를, 메이크업에 형식에서는 여성적 요소를 포함한 양성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 11〉은 금색으로 메이크업한 여성과 은색으로 바디페인팅한 남성은 성을 초월하여 마치 마네킹을 연상시키게 하며 이러한 메탈릭 질감표현은 하이테크 감각과 함께 성의 혼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양성적 표현으로서 드러난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은 미래패션이 성의 해체⁵⁴⁾를 예고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에스노(ethno) 메이크업

제3세계 문화인 에스닉(ethnic)과 최신의 첨단기술의 이미지를 도입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테크놀로지의 약칭인 테크노(techno)로 합성되어진 에스노(ethno)는 우리가 알고 있던 에스닉 개념에 현대문명이 가진 첨단 테크노가 결합된 것이다.⁵⁵⁾

그러나 이렇게 부각된 에스닉은 그 특유의 자연스러움을 특징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속의 특유성을 표현한 에스닉에 기교적이고 기술적인 미래지향적 변형을 가한 것을 말한다.

에스노 메이크업은 에스닉의 형태이지만 과거의 의미와 상징성을 탈피하여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독특한 형태와 색상을 바탕으로 하여 혼성모방, 변형, 삭제의 기법으로 표현된다.

에스닉 메이크업은 복식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고대 이집트인은 외부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검정 화장 먹을 이용한 아이라인 기법으로 관자놀이 방향으로 길게 그린 아이메이크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런 코울(Kohl)은 메이크업의 주술적 기능, 장식적 기능 및 신체보호 기능을 가진 재료로써 사용되었다.⁵⁶⁾

80년대 이후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이 유행하면서 고대의 눈을 커 보이게 하는 코울 효과를 이용하여 두께의 변형이나 메탈릭 한 재료와 색상의 변화로서 테크니컬 한 이미지로 선보여진다.

현대에 사용되는 코울의 색상은 원색적인 색상에서부터 파스텔 톤(pastel ton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사진 12〉은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작품으로 키네틱 양식과 같은 헤어스타일에 눈썹은 연장시켜 눈 꼬리와 연결되게 하고, 펄이 가미된 검정색 코울을 칠하였다.

화이트 메이크업은 에스닉 경향이 짙은 메이크업으로 과거에 사용되었던 권위와 우월의 상징인 화이트 색채가 현재에 사용되면서 밝은 미래지향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에 사용되었던 색채가 현재의 테크노 감각과 어우러진 에스노 메이크업은 새로운 절충적 모드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진 12〉 John Galliano, 1997, AW (www.firstview.com)

V. 결론 및 제언

20세기말에 이르러 과학의 급진적인 진보와 기술 혁신에 의한 소재의 개발은 과학과 대중 사이의 간격을 좁아지게 하였고, 다양한 예술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또한 현대 패션에서의 메이크업은 패션이미지표현의 한 방법으로서 크게 강조되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의 테크놀로지의 접목은 테크노-사이버 패션스타일을 이끌었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서 테크노-사이버 패션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특히, 테크노-사이버 패션에서의 메이크업이 어떻게 예술적으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고 또한 어떤 미적 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범위는 테크놀로지가 패션에 반영되기 시작했던 1960년대 이후부터 메이크업이 다양하게 표현된 1990년대를 집중적으로 메이크업의 특성을 분

석하는데 주력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현대 패션에서의 테크노-사이버 패션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면에서는 기하학적 형의 규칙적이고 단순 명료한 형태로 표현되어 나타났다.

둘째, 색채면에서는 금속성 색채 뿐 아니라 고풍택의 형광색, 화이트, 브라이트(Bright)한 색채 등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어졌다.

셋째, 소재면에서는 신축성 소재, 시-쓰루 소재, 비 일상적 소재 등과 같이 테크노 소재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토탈 패션이 강조되는 현대 패션에서의 메이크업은 테크노-사이버 패션 스타일을 더욱 개성화, 다양화의 특성을 띠게 하면서 진취적인 이미지로서 표현되어져 왔다.

테크노-사이버 패션에서의 메이크업의 특성을 크게 조형적 특징과 미학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먼저 조형적인 면에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얼굴 윤곽을 크게 고려하지 않거나 이목구비, 형태, 좌우대칭을 파괴하는 등의 기존의 정형적 스타일을 거부한 기하학적 형의 메이크업이 주로 많이 나타났다.

둘째, 개방성을 지닌 화이트색상과 하이테크 감각의 골드, 실버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이버 색상인 형광색 등으로 디지털 색채의 새로운 유행에 포인트를 주고 있었고, 세기말의 심리적 불안을 반영한 검정색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메탈릭이 가미된 질감의 표현과 이질적 재료의 사용으로 재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특성을 띄며 특히 투명성과 기능성을 살린 메이크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테크노-사이버 메이크업의 미학적 특성은 메이크업의 형태와 기술적 표현 방법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 크게 미래지향성, 초현실성, 반문화성, 절충성의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지향적 이미지는 광택과 글로시한 이미지의 반짝이는 질감을 강조한 메탈릭 메이크업과 인체의 단순한 형태미를 강조한 투명 메이크업을 통해 나타났다.

둘째, 초현실적 특성은 이색소재의 도입과 위치변경으로 의외성을 표현한 콜라주 메이크업과 획일화된 형식을 파괴한 그래픽 메이크업 표현에서 잘 드러나고 있었다.

셋째, 반문화적 성향의 사이버 핑크 이미지는 핑크를 상징하는 검정색의 어두운 색조를 주로 사용하거나, 파괴적이고 도전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타투와 피어싱 등의 표현에서 잘 나타나고 있었다.

넷째, 절충적 특징은 성의 경계를 허무는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과 에스닉 개념에 현대문명이 가진 첨단 테크노가 결합된 에스노 메이크업으로 드러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테크노-사이버 메이크업은 첨단기계 문명의 가속화와 맞물려 기존의 전통방식을 허물고 새로운 사상과 주관적 감각을 바탕으로 진취적인 이미지를 내포하면서 표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문헌과 패션 사진을 통한 연구로서, 추상적 개념정리에 대한 여러 증빙자료들이 정확히 실제 색채 표현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는 메이크업이 오로지 현대 패션의 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으로도 예술 영역의 한 표현으로서 또는 패션 이미지의 한 수단으로 충분히 미적인 의의와 가치를 지니면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메이크업은 기술과 표현 방법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큰 미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면서 다양하게 표현되어지리라 본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앞으로 다른 패션이미지 표현에서의 메이크업 연구도 더욱 박차를 가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메이크업의 본질과 근원, 미래 메이크업등 후속 연구에 깊이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이은규 (1999). 테크노-사이버 패션을 응용한 무용의상 디자인.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7.
- 2) 홍성태 (1997). 사이버보그 사이버컬처. 문화과학사, 서문.
- 3) 김희숙, 이은임 (1996).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p. 93.

- 4) Ted Polhemus (1994). *Streetstyle*. London: Thames and Hudson, p. 92.
- 5) 김희숙, 이은임, *op. cit.*, p. 63.
- 6) *Ibid.*, p. 33.
- 7) 정홍숙 (1999).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 410.
- 8) *Ibid.*, p.408.
- 9) 김희숙, 이은임, *op. cit.*, p. 65.
- 10) 조규화 (1996).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p. 280.
- 11) 김미영 (1998). 시-쓰루 양식을 응용한 현대 한국 의상 디자인. 동덕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 12) Cyril Barrett (1997). *Kinetic art: Concets of modern art*. New York: Happer & Row Publishers, pp. 211-212.
- 13) George Rickey (1962). *The morphology of movement: A study of kinetic art*. George Kepes(ed) *The Nature and Art of Motion* New York: George Braziller, p. 82. 를 김수진 (1993). 키네틱 아트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에서 인용함.
- 14) 김정애 (1995).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테크노-사이버 패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3.
- 15) *Ibid.*, p. 37.
- 16)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색상으로 오렌지색이나 또는 녹색의 사과 같은 밝고 원색적인 색상.
- 17) 김예형 (2001). 복식 디자인의 미래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8-29.
- 18) Black & White 이 주로 사용됨.
- 19) Sarah E. Braddock and Marie O'Mahony (1998). *Techno textiles*, New York: Thames and Hudson, p. 10.
- 20) *Ibid.*, p. 7.
- 21) 青山行夫, おしやれの文化使(history of Beauty Culture), 東京, p. 26; 조은별 (1996).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6에서 재인용.
- 22) 강영아 (2000). Make-up의 색채이미지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경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 23) 최은지 (1999). 아방가르드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p. 63.
- 24) 장미숙 (1998).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5.
- 25) 김은영 (2000).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적 특성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4-35.
- 26) 이영애 외 3인 (2000). 뷰티 디자인과 색채학. 청구문화사, pp. 160-161.
- 27) 강경화 (2000). 현대 메이크업 총론. APC, p. 249.
- 28) 김영경 (1995). 이집트 장식 문양을 응용한 현대 아트 메이크업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0.
- 29) 이행화 (2000). 영상디자인에 나타난 Cyber Color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4.
- 30) 김효경 (2000). 테크노-사이버 패션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8-47.
- 31) 이상진 (1997). 현대복식에 나타난 미래주의적 경향. 숙명여자 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7.
- 32) 김희숙 (1997). 해방이후 한국여성 화장변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32, p. 95.
- 33) 최혜정, 임영자 (2001).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51(2), p. 160.
- 34) 반짝이는 효과를 주기위한 장식용 금속 조각.
- 35) 이행화, *op. cit.*, p. 91.
- 36) *Ibid.*, p. 89.
- 37) 이연희 (2001). 색채화장이 얼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90-96.
- 38) 정연자 (2000). 복식에 표현된 가벼움의 이미지. 한국 의상디자인 학회지, 2(2), p. 88.
- 39) Bevis Hiller, 조규화 역 (1993). *The style of the century 1900-1980*. 서울: 수학사, p. 224.
- 40) 이숙 (2000). 미니멀리즘을 활용한 화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9.
- 41) 조경희 (2001). Body-Conscious Look에 나타난 미적 특성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 136-138.
- 42) 이효진 (1994). 현대의상의 작품문양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의 무의식 개념에 관한 연구. 복식, 22, pp. 5-6.
- 43) 이효진 (1997). 현대 패션 디자인 소재에 표현된 예술적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32, p. 169.
- 44) 정삼호 (1996). 현대 패션모드. 교문사, pp. 103-104.
- 45) 김현미 (2000).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56.
- 46) 김영호 (1998). 시각디자인의 구성원리. 태학사, p. 13.
- 47) 가재창 (1993). 패션디자인 발상트레닝5권. 도서출판정은, p. 30.
- 48) 송명희, 조규화 (1997).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랙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 비즈니스학회, 1(1), p. 120.
- 49) 조경희, *op. cit.*, p. 145.
- 50) 김문정 (1995).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을 이은규, *op. cit.*, p.38에서 재인용.
- 51) 양희영 (1998).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질충주적 경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3.
- 52) 김경옥, 금기숙 (1998. 1). 현대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 너스에 관한 연구. 복식, 36, p. 257.

53) *Ibid.*, pp. 243-246.

54) 조경희. *op. cit.*, p. 149.

55) *Fashion Today*(1996. 8), p. 36.

56) 한명숙 (1999). *마뽀아쥬 예술*. 청구 문화사, p. 16.